

Vol.11/No.2  
2017 SUMMER

무예연구 : 한국무예학회

JOURNAL OF MARTIAL ARTS : KOREA SOCIETY OF MARTIAL ARTS

# 正間의 原形으로써의 金堤 紅心亭 先生案(函) 研究

The Pretotype Study of Junggan

유승권 Yu, Seong-Gwon, 박근 Park, Geon



한국무예학회



# 正間の 原形으로써의 金堤 紅心亭 先生案(函) 研究

유승권(성균관대학교), 박 근(군산대학교)\*

## 국문초록

국궁은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이다. 오늘날 국궁은 생활스포츠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통적인 요소는 잊혀지고 소멸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간'의 원형이다. '정간'의 역사와 의미는 가장 밝혀지지 않은 것 중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 국내 유일하게 정간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선생안(함)을 보존하고 있는, 김제의 홍심정을 통하여 정간의 원형을 밝혀내고자 노력하였다. 다행히도, 김제 홍심정은 230년의 유구한 세월동안 원형을 지켜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세월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당에서 선생안으로 그리고 정간으로의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현실에서 전통의 소중함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주요어 : 국궁, 정간, 홍심정, 선생안

---

\* deokjungone@naver.com

## I. 서 론

국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무예이자 군자의 덕목으로 알려진 전통 문화유산이다. 현재도 약 380여개의 활터에서 만 여명의 동호인이 활동하는<sup>1)</sup>, 국궁은 명실 공히 씨름과 더불어 대중 스포츠로써 발전한 여타의 전통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사를 논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 역사는 곧 활의 역사요, 활과 우리민족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활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연구나 이론적 고증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현 상황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정간(正間)이라 할 수 있다.

‘정간’이라는 것은 ‘바를 정(正)’ 자에 ‘사이 간(間)’ 자를 새긴 작은 팻말이다.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활터에서는 건물의 가운데 칸에 정간을 걸어 놓고, 출입 시 정간에 예(禮)를 행하는 것으로 관행을 삼고 있다. 정간이 예(禮)의 중심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법(禮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정간이 언제 어떤 연유로 생겨난 것인지, 또 어떤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만 난무할 뿐, 명쾌한 해답을 내어 놓은 이가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슨 연유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예를 표한다는 것은 학자적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까닭에, 이에 발심이 되어 선행연구를 찾아보게 되었다.

먼저 그동안 많이 알려진 정간에 대한 여러 방면의 분석을, 임실 군자정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발췌하여 보았다.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간의 명칭을 해석해보면 ‘正은 올바르다’라는 뜻이 있고, ‘間은 곧은 빛의 화살’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정간은 옳고 바르며 곧은 빛과 같은 화살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간은 ‘옳고 바른 장소’라는 의미이다.

세 번째, 正자는 진리가 담겨있는 밝은 빛이요, 間자는 사람의 마음이다.

1) 2016년 대한체육회 궁도선수등록인(<http://www.sportsg1.or.kr/stat/>)은 10,802명이었으나, 인터넷을 통한 선수등록의 능력이 없는 노인세대 국궁인, 대한궁도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국궁인(학생 포함),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궁인 등이 빠진 숫자이다.

고로 밝게 빛나는 마음자리이다.

네 번째, 정간은 5개의 밝게 빛나는 화살이다” 2)

정진명(2010)은 『활쏘기의 나침반』에서 정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거듭 피력했는데,<sup>3)</sup> ‘정간은 옛 구사들이 계셨던 빈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자 하였다. 정진명은 이전에도 『한국의 궁도(1986)』를 통해 처음 정간의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정간은 해방 전에는 없던 것이고 최근에 생겨난 것’이라 주장하였다. 대체로 정진명은 정간에 대한 해의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진명이 정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책은 『한국의 활쏘기(1999년)』이다. 이 책에서는 ‘정간이 1970년대 말에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하여 1980년대에 실시된 전국대회를 매개로 하여 전국으로 퍼져간 풍속이라는 것’을 구사들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고증했다. 이후 김세현(2003)이 다시 「정간의 유래에 대한 고찰」을 내 놓았고, 황학정(2005)의 김집이 『국궁교본』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었는데, 둘 다 정간은 근거가 없으니 태극기를 대신 달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정간의 유래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퇴임원로나 지역의 유지들이 활을 쏘았고, 그들이 나이가 들어 활을 쏘지 못하게 된 뒤에도 활터에 나와서 후학들의 활쏘기 모습을 보며 지냈다. 전라도 지역의 고풍(古風)이란 풍속은 바로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정 건물의 중앙에 놓인 곳에 앉아서 소일했고, 자신을 존경하는 후학들에게 시(詩)도 써주며 잔치도 베풀어주곤 했다. 신사들은 의례히 활터에 올라오면서 그곳에 가서 인사를

2) 만오 김용욱(청주우암정), 『임실의 활터 군자정 이야기』 중에서 정간의 의미에 대한 고찰, 임실군자정, 2003, 286-293쪽

3) “정간도 마찬가지다. 점점 경박해지는 젊은이들에게 구사들의 권위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그럴듯한 설명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전라도 지역의 정간이 나타났고, 그것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한 끝에 1980년대 들어 갑자기 불어난 전국의 사정에서 너도나도 배워간 것이다. 이것이 해방 전에는 있지도 않던 정간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진 이유이다.” (정진명, 『한국의 활쏘기』, 학민사, 1999, 40-45쪽)

했다. 그러다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활쏘기가 소원해지고 원로구 사들이 이승을 떠나면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정간’이라는 현판을 걸고 거기에 예를 올리는 것이었다.”<sup>4)</sup>

정간(正間)은 말 그대로 가운데 칸이라는 것이다. 칸은 기둥과 기둥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며, 정간은 말 그대로 집의 한 가운데가 되는 것이다. 단지 집의 가장 가운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궁도인은 여기에만 출입 시 예(禮)를 표해야 하는가? 이는 결코 타당한 말이 아니다. 여타의 해설을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정간(正間) 자체의 의미에서 해답을 찾는 것은 공염불에 가까운 것이 된다. 옛 구사의 자리이니 후인들이 습관적으로 인사하던 것이 정간이 된 것이라는 말도 일견 일리는 있으나, 만족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간이라는 용어에서 정간의 의미를 찾는 여타의 방법은 그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다. 정간의 역사적 진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현존하는 유물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어떠한 유추도 단지 추론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연구자 또한 단언하여 이것이 곧 그 해답이라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고증적 사료와 사실에 근거에서 그 원형을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마침 정간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에 일정 부분 해소의 여지가 있는, 정간의 원형이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김제 홍심정을 근거로 역사적 변천과정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이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로 말미암아 국궁이 추구하는 정간의 철학적 근간에 대한 재정립의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II. 정간의 원형으로써 선생안(함)

### 1. 홍심정(紅心亭) 정간(正間)의 내력

정간(正間)의 원형을 짐작할 수 있는 활터가 있는데, 전북 김제시에 소재한 홍심정이 바로 그곳이다.

4) 정진명, 『활쏘기의 나침반』 학민사, 2010, 55-60쪽

홍심정은 정조 13년(1789), 당시 김제군 성산 북편에서 천홍정(穿弘亭)이라는 명칭으로 조지택(趙智宅) 초대사두에 의해 창립되었다. 1820년 서변면 옥거리(현 옥산동)로 이전하였다가, 1826년 서변면 요촌리로 신축 이전하여 홍심정이라 칭하였다. 이후 고종 29년(1892) 51대 사두 진사 조방순 공원<sup>5)</sup> 때에 103년의 역사를 간추려 기록하였다. 이후 1892년부터 1956년까지 64년의 홍심정의 기록이 불행하게도 선생안(先生案)과 사안(射案)만을 남겨두고 모든 행사기록이 멸실되었다. 1978년에 현 김제시 교동 279번지로 신축 이전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sup>6)</sup>

현재의 홍심정 <그림 1>은 성산(城山)의 기슭에 깎아지른 절벽을 바람막이한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지어졌다. 1층은 현대식 양옥 건물이고, 이층은 세 칸짜리 한옥으로 단출한 기풍을 가진 건물이다. 이곳에도 여느 활터처럼 일층 삼 칸의 가운데에 “正間”이라는 팻말을 걸어 놓았다. 더불어 그 옆으로는 230년 동안의 역대 사두의 성명 또는 사진들이 걸려있다. 그리고 삼 칸의 전후를 반으로 나누어 마루로 단을 만들어 안팎을 구별해 놓았다. 역대 사두들의 성명이나 사진이 걸려있는 안쪽은 쉽게 범접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행사나 모임은 마루 바깥쪽에서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1 김제 홍심정 전경

5) 공원은 재무의 직책에 해당함

6) 이곳에서 99대 사두를 역임한 한용복 명궁에게서 관련 자료와 구술협조를 받았다.

각지의 오래된 몇몇 활터의<sup>7)</sup> 구조를 비교해보면 대략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이는 엄밀히 살핀다면 사당 구조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 사당은<sup>8)</sup> 삼 칸 사당의 안쪽에 위패(位牌)를 모셔놓고 문을 닫아 평소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제례 시에만 문을 개방하게 되어 있는 구조와 형식이 일반적이다. 문 밖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홍심정의 구조에서는 안팎을 구별하는 문이 생략된 것이다. 하지만 문을 대신하여 단을 높여 공대하여 평상시에는 쉽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였으니,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예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역대 사두의 명단 및 사진은 곧 위패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한분 한분을 위패에 모셔 놓은 것은 아니지만, 명단이나 사진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도 용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명단 및 사진을 위패의 대용으로 보았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평상시에도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개 위패는 덮개를 덮어 보관하다가<sup>9)</sup> 제례 시 꺼내어 상위에 놓고 비로소 덮개를 여는 것이 일반적인 예(禮)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낙 많은 위패를 한 분씩 제작하기에는 과례(過禮)한 면도 없지 않은 까닭에 명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대략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렇듯 덮개도 없이 아예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예(禮)에 맞지 않는다 하겠다.

홍심정에서 정체불명의 정간(正間)이라는 팻말과 더불어 역대사두의 위패

7) 전주 천양정, 강경 덕유정 등을 말한다.

8) “사당은 3칸에 5가(架)로 하되 안에는 磚(벽돌)을 깔거나 나무판자로 마루를 깔고 그 위에 자리를 편다. 그리고 중간도리 밑에 문을 만들어 中門이라 하고 칸마다 4문짝을 달아 분합문이라 한다. 분합문 밖에 3級인 두 섬돌을 놓는데, 동쪽을 祚階라 하고 서쪽을 서계라 부른다. 사당의 향배는 앞을 남, 뒤를 북으로 보고, 만약 가세가 빈한하여 집터가 좁으면 다만 1칸만 세워도 된다. <중략> 사당 안에는 감실마다 탁자 위에 주독을 놓고 그 속에 신주를 모시며, 감실 밖에는 각각 작은 발을 내리고 그 발 밖의 사당 한가운데에 향탁을 놓고 향탁 위에는 동쪽에 향합, 서쪽에 향로를 놓아두며, 사당 밖 두 섬돌 사이에 둔 향탁위에도 마찬가지로 향로와 향합을 놓아둔다. 감실 안에 놓아둔 탁자는 각각 좌면지, 즉 유지로 덮어두며, 그 위 북쪽 끝에 좌료라는 작은 방석을 깔고 그 위에 주독을 놓으며, 반부위는 각각 해당하는 祖位에 耐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쪽과 서쪽 끝에 서향 또는 동향하여 좌료위에 모시기도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10』, 1991, 763-765쪽)

9) 별도로 감실을 마련한 곳에서는 감실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한다.

와 사진이 혼재한 이 공간은, 사당의 기능을 갖추고자 하는 의도는 역력하나, 위패의 대응인 역대 사두의 명단과 사진이 외부에 노출된 것은 예(禮)에 충족되어지지 않는다. 이는 비단 홍심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활터에서 일반적으로 범해지고 있는 사례이다.



그림 2. 김제홍심정의 선생안(함)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무렵, 홍심정 2층에는 선생안, 즉 위패함이 보관되어 있는 감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sup>10)</sup> 구사들은 이 선생안(함)이 예전의 활터에서 부터 있던 것을 옮겨 온 것이라 한다.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는 이는 없고, 단지 백년도 더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여지는 선생안이 봉안된 홍심정 이층은 전형적인 삼칸 사당 구조다. 문이 설치되어 외부와 구분되어 있고, 선생안을 보관하던 함(감실)이 설치된 위치는 당연히 가운데 칸인 정간, 즉 정북향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구조의 편리상 약간 벽 위쪽 우측자리에 치우쳐 설치되어 있다. 이 속에 명부라 할 선생안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증언한다. 당시엔 이곳 이층 난간도 사대(射臺)로 사용했었으나, 오르내림의 불편함으로 인해 점차 일층만 사용하게 되면서, 계단마저 철거하여 이층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그러다보니 차츰 함에 보관되어 있던 선생안을 위시한 일부

10) 감실 열람과 증언은 홍심정 안병길(95대 사두) 명궁을 비롯한 여러 구사들이 협조해 주었다.

문서들이 유실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일층 사무실 금고에 선생안과 사안을 보관하고 있고, 이층은 방치된 채로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일층이 주된 공간이 되면서 선생안(함)은 이층에 그대로 남겨 둔 채, 일층에는 역대사두의 명단과 사진을 위패의 대응으로 걸어놓게 되었고, 정간이라는 명패도 걸려 있게 되었다. 또 누군가의 반발에 의해 그 옆에 태극기도 함께 걸어 두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생안(함)에 사두의 명단을 보관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림 3>에서 보듯이<sup>11)</sup> 일반적인 향교를 예로 든다면, 사당을 세웠으면 문으로 내외(內外)를 구별하고, 세 칸의 원편(보는 방향에서)에서부터 1대를 시작해서 위패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아니면 가운데 칸을 주벽으로 하여 가장 높이실 분을 세워 놓고, 소목으로<sup>12)</sup> 위패를 세워도 가능할 것이다. 위패는 평소 덮개를 덮어서 감실에 보관하며,<sup>13)</sup> 봄가을 제례와 행사시에 한해 감실에서 꺼내어 위패를 열어두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다소 예(禮)에서 지나치는 면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무조건 선대를 높이는 것은 과

11) 만경 향교 석전제, 태극문양을 한 위패를 보관하는 감실이 보인다.

12) 『中庸』 十九章 :

“宗廟之禮는 所以序昭穆也오 .....宗廟之次는 左爲昭하고 右爲穆而 子孫이 亦以爲序하야 有事於太廟則子姓兄弟가 群昭群穆하야 威在而不失其倫焉이다.” (종묘의 예법은 소목으로써 차례하는 바요..... 종묘의 차례는 왼쪽이昭가 되고 오른쪽이穆이 되어 자손이 또한 써 차례로 삼고, 태묘에 일이 있을 즉 자성형제가 여럿이 군소군목함이 다 있어 그 차례를 잃지 아니하니라.)

13) “불교의 불상이나 유교의 신주, 기타 갖가지 안치물을 봉인하기 위하여 만든 건축적 공간, 원래 집이나 방의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건물보다는 작은 규모의 공간을 뜻한다. 龕의 종류에는 형태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벽감(壁龕), 둘째 건축형태의 감실, 셋째 공예적 감 등이다. 벽감은 벽면에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부조나 조각상 또는 기타 등잔 같은 공예품을 안치하는 곳이다. <중략> 이 밖에도 돌아가신 분의 위패, 즉 신주를 모신 방을 말하기도 하는 데, 이 경우에는 神榻과 檀臺 등을 갖추고, 바닥에는 황화석을 깔고 방 앞에 유막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 1991, 297-298쪽)

본래 감실은 3칸 사당 내에 네 분의 신위를 두게 될 때, 각위의 사이를 나무관자로 가로 막아 분별을 해놓은 각 방을 일컫는다. 그러다가 신위사이를 가로 막아 방을 만들기가 용이치 않거나 혹은 다른 이유에서 신위를 벽 중앙에 함을 만들어 그 속에 넣어두고 보관하는 방법이 생겨나니, 이 때에 그 함을 또한 감실이라고도 한다. 선생안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비례(過恭非禮)에 해당하기에, 이보다 조금 예(禮)를 낮추어서 주벽의 자리에만 한정하여 함(감실)을 만들어, 그 안에 위패를 대신하여 역대 선생(사두)의 명단을 보관하는 것도 합당한 방법이요, 예(禮)에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간략화 된 예법, 즉 위패를 세우는 대신 감실에 역대 선생들의 명단이 쓰여 있는 선생안을 보관하는 법이 어느 샌가 명맥 있는 활터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래서 각 사정의 가운데 칸, 곧 주벽을 세우던 자리에는 감실, 즉 위패함(선생안)이 들어서게 되어 “사두안(射頭案)” 또는 “선생안(先生案)” 등의 명칭으로 불리어 지게 되었고, 사원들의 출입 시나 혹은 행사 시에 공경을 표하는 대상이 되어왔을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그림 3. 만경 향교의 전경



그림 4 향교 내부와 감실



그림 5. 김제 홍심정의 정간



그림 6. 홍심정의 역대 사두의 사진

현재의 홍심정<그림5X그림6>은, 이층에는 사당과 위패를 안치하는 감실 곧 위패 대신 선생안을 보관하는 함, 그리고 일층에는 역대 사두들의 명단과 사진과 오늘날의 정간, 그리고 태극기까지 수 백년의 변천과정이 모두 나열되어 있는, 활터의 시대적 변화가 압축된 공간이 된 것이다.

## 2. 선생안(함)이 정간으로 대체된 문제

사당의 형태에서 선생안의 형태로 형식이 축소된 것은 논리적 추론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지만, 급작스레 선생안에서 그다지 연결고리가 없는 정간으로 대체된 까닭은 무엇일까?

1912년에 제정된 전주 천양정 규례를 보면 “사원이 사정에 진할 시는 반드시 먼저 정간에 배례한 후에 사반에 입함”이라는 문구와 1958년 천양정 현장 제 25조를 보면 “정간은 선생안의 봉안 또는 사장의 정좌를 상징한 존엄처이므로 정간 또는 정간의 정면은 타인의 침범을 불허한다”는 구절을 확인할 수 가 있다<sup>14)</sup>. 이 때의 정간은 오직 선생안을 모신 가운데 자리 만을 지칭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홍심정의 최고 고령이신 김태성 고문(金泰成 현 94세)<sup>15)</sup>의 증언을 들어 본다면, 73년도 홍심정에 처음 입문했을 시에는 선생안 아래에 정간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이후 1978년



그림 7. 전주천양정 선생안

도에 현 위치로 홍심정을 이전하게 되었을 때, 이층 건물로 새로이 건물을 세우게 되니, 자연히 예법상 선생안은 이층 한옥에 봉안하게 되었고, 정간이라는 팻말은 바로 그 아래 일층에 걸리게 된 것이다. 당시에 홍심정은 명망있는 정이라 꾸준히 전국대회를 개최하였고, 1978년도는 신축기념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추측컨대 당시 홍심정의 이층은 전형적인 사당구조로써 선생안을 봉안하여 평시에는 개방되지 않았고, 통행이 편리한 일층이 주 공간이 되면서 계단도 폐쇄하게 된다. 따라서, 일층에 걸어 둔 정간에 배례하는 것으로 이층에 봉안된 선생안에 대한 배례를 대신하게 된 것이

14) <http://www.archerynew.net/>

15) 홍심정 84대 85대 사두 역임

상황에 미루어 볼 때 사당은 미신으로 치부되고 전국 각지의 사당이 폐쇄되는 경우가 다반사인지라, 오히려 정간에 배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전통을 지켜낼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으로나마 선학(先學)에 대한 공경이라는 예(禮)의 본질은 지켜내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후 신설되는 많은 활터에서는 이전의 선조가 없어 세위들 선생안도 없는 까닭에, 더욱더 정간은 활터의 문화로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전주 천양정(穿楊亭)(그림 7)을 보더라도 선생안을 폐지하고 우측칸에 별도로 선생들의 사진을 걸어두는 선생헌을 두었다고 한다. 가운데 칸에는 정간을 90년대 후반까지 걸어두었다가, 지금은 정간을 떼어내고 다시 선생안이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생안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시류속에서, 천양정도 부득이 하게 선생안을 폐지하고 정간을 걸었었다가, 정간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이후, 90년대 후반에 다시 선생안을 세우게 된 것이리라. 아쉬운 점은 선생안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새로이 제작되어 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예법 또한 여타의 시류에 의해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우측에 마련된 선생헌의 사진들이 그 예이다. 예법으로 본다면 우측에 마련된 선생헌은 원래는 역대 선생의 유품이나 문서등을 보관하는 장소일 뿐이고, 공경의 장소인, 정간 곧 가운데 칸에 선생안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생헌에서 제례하는 것은 예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sup>16)</sup>.

홍심정에서는 이미 선생안(함)에 보관되어 있던 선생안과 여타의 건물의 양식을 통해, 사당의 감실(위패함)에서 선생안(함)으로 변형과정을 추론할 수 있었고, 선생안(함)의 자리가 현 정간의 일치함<sup>17)</sup> 천양정 규례를 통해, 그리고 홍심정의 이층 구조의 특성을 통해 선생안(함)에서 정간으로의 변화도 추론해

16) 『增補四禮便覽』 卷之八 308쪽 : 若家貧地狹하여 止爲一間則祠內 東西壁下에 置兩櫃하니 西藏遺書衣物이요 東藏祭器가 亦可라  
만약 집이 가난하고 땅이 협소하여 한칸에 그친다면 곧 사당내에 동서벽아래 양귀를 들지니 서쪽에는 유서와 의복과 유물을 감추고 동쪽에는 제기를 감춤이 또한 가하니라

17) 홍심정의 특이한 구조, 일층 양옥과 이층 한옥의 구조로 인해, 한 때 이층이 주 공간이었을 시의 선생안(함)의 위치와 일층으로 주 공간이 옮겨진 후의 정간의 위치가 서로 일치함을 보인다.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김제 홍심정의 선생안은 언제 세워진 것인가?

위패에서 선생안으로 변화시키는 홍심정의 선생안의 설립연대와 연관을 지을 수 있으며, 선생안에서 정간으로의 변화시키는 홍심정의 이전시기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 홍심정의 선생안이 언제 설립되었느냐의 문제에 선행될 전제는 선생안(명부)이 만들어진 시기와 선생안(함)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정립이다. 위패의 제작과 형식의 간소화로 인해, 위패를 대신하고자 선생안을 작성했다면 선생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위패의 보관함으로써의 감실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후에 위패에서 선생안(명부)으로 간소화 되었을 시에는, 이미 세워진 감실에 선생안(명부)을 보관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선생안(명부)보다 선생안(함)이 먼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생안(명부)가 선생안(함)보다 먼저 제작되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런 까닭에 선생안(명부)의 제작시기보다 선생안(함)의 제작시기가 더 먼저이거나 최소한 같은 시기여야 하는 것이다.

먼저 선생안(先生案)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선생안’이란 명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案’이라는 글자는 책상이라는 뜻으로 이미 보관하는 장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선생록(先生錄)’이라고 썼다면 이는 당연히 명단을 기록한 장부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선생안’이라고 쓴다면 이는 선생들의 성명을 기록한 책을 보관하는 곳이란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곧 책(冊)을 높여서 부르는 일종의 경칭이다. 책 자체를 지칭하지 않고, 그의 보관하는 곳을 대신 지칭함으로써 서책의 내용을 경대하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선생안이라고 언급했을 때에는 단순히 이름만을 기록한 책이 될 수도 있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문맥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김제 홍심정의 선생함속에 보관되어 있던 선생안은 잠시 유실되었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홍심정으로 돌아온 것이라 한다. 그 서문(序文)은 유려한 초서(草書)로 쓰여져 있다. 이에 선생안의 설립 연대를 밝혀 줄 만한 내용이 실려 있기에 옮겨본다. 이 선생안 서문은 1892년 51대 사두었던 조방순(趙方淳) 사두가 지은 것이다.

射可以觀德行이라 德行者는 保世長民之源也라 凡於鄉黨에 若有一美一善

之人은 必立祀以表之하야 或繪像以傳之하야 使後世君子로 雖不能親被薰陶이나 接之於書하야 若復奉履하니 此所以河洛有耆老錄也라. 郡之東武地有一亭하니 鄉先生游射之墟也라. 其流風餘韻 霏然被於庭花林木하니 對之慨然有曠古之感하니 此固然之理也라. 雖於花木之間에 猶尙愛惜이어늘 況升堂而陪儼像하야 開卷而奉遺囑者 其慕效之誠 倘復如何哉리오. 蓋此亭也其來久矣라 不幸中間先生案爲護守之不愼하야 竟敗遺失하야 使先生遺蹟一歸湮沒하니 此大欠闕也라. 經紀者日久하야 嗟歎者年積矣러니 幸於今夏에 不肖余猥參公員하니 此卽有志竟成之時也라. 詢謨僉僚하야 更立先生案하야 長第列啣하야 使分某賢某丈之同時並世之義而後來射員亦詳系某賢之後裔某丈之雲仍則不問加分其先生子弟也라. 以先生子弟로 今又同時是世則其誼其契 可謂踵前武矣라. 後之視今猶今之視昔하니 從之守之하야 以俟後之君子云爾라. 歲在壬辰七月上瀚/趙順恭曾孫方淳 謹書/曾經射長外勿入此案事.

(홍심정 선생안 서문) 활은 덕행을 보는 것이다. 덕행이라는 것은 세상을 안보하고 백성을 자라나게 하는 근원이라. 대범 향당에 만약 한 가지의 아름다운 일과 한가지의 선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사당을 세워 드러내고, 후 상(초상)을 그려 써 전하야, 후세 군자로 하여금 비록 능히 친히 훈도를 힘입지는 못하였으나, 글에 접하여서는 다시 받들어 실천할 것이니, 이는 써 하락의 노옹(옛성현)이 기록한 바라. 도읍의 동무지에 한 정(활터)이 있으니 고을의 선생들이 활 쏘던 곳이라. 그 유풍과 여운이 애연히 뜰의 꽃과 숲의 나무에도 힘입어 있으니, (이들) 대함에 개연히 빈 옛 자취를 느낌이 있음은 이 진실로 그러한 이치라. 비록 꽃과 나무의 사이에도 오히려 애석함이(담겨있)거늘, 하물며 당에 올라 위엄 있는 형상에 짝하고(마주 대하고), 책을 열어 남긴 함자를 받드는 자는, 그 사모하고 본받음의 정성을 오히려 회복함이 어떠하리오(얼마나 크리오). 대개 이 정(활터)은 그 읍(역사)이 오래됨이라. 불행히도 중간에 선생안을 지킴에 삼가지 못하여 마침내 패하여 유실하게 되었으니, 하여금 오랜 세월의 유적들도 한 가지로 몰함에 돌아갔으니, 이는 크게 흠궐함이라. 기강이 지나고 날이 오래 됨이어늘 차탄함이 해마다 쌓임이 있음이로되, 다행이 이번 여름에 불초자인 내가 외람되어 공원(재무)에 참여하니, 이는 곧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는 뜻이라. 여러 동료에게 묻고 궤하야 다시 선생안을 세워 기리고 여러 함자를 나열하야, 하여금 모현 모장의 같은 때에 아우른 세대의 의(의로운 기상)를,

후세의 사원 또한 자상히 이어, 모현의 후예이며 모장의 운잉(후손)임을 분별케 한즉, 묻지 아니하여도 가히 그 선생의 자제임을 분별하리라. 이로써 선생의 자제 또한 같은 세대인 즉, 그 말과 그 계를 가히 선학(선조)의 무덕을 좇게 한다 이르지니라. 후대가 지금을 바라봄이 지금이 옛일을 바라봄과 같으리니, 쫓아 지켜 뒤의 군자를 기다린다 이를 뿐이라. 임진년 칠월 상한 조순공의 증손 방순 삼가 쓰노라. 일찍이 사장(사두, 선생)을 지낸 외에는 이 안사(선생안)에 들이지 말지니라.

위 내용으로 살펴 본다면 당시 홍심정은 활터가 쇠락하여 무너져 버리고, 선생안도 유실되어 폐허가 된 상태로 보인다. 하여 이를 안타깝게 여긴 조방순 공원(재무)이 그간의 행적을 찾아 선생안을 다시 기록·작성하고, 흔적만 남았던 활터도 다시 세운 것이다. 윗 문장을 보면 건물을 다시 세운 것보다는 오히려 선생안을 다시 세운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유의해 볼 수 있다. 예부터 불이 나면 신주(神主)부터 구한다는 전통적 관념과 통하는



그림 8. 51대 사두 조방순 적선불망비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활터에서의 건물은 선생안을 보관하는 사당으로써의 의미가 더욱 큰 셈인 것이다. 활을 쏘는 사대는 굳이 건물을 요하지 않지만, 선생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조물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선생안을 보관하는 장소으로써의 활터를 다시 세운 것이 되는 것이고, 이때의 활터는 신주를 모시기 위한 사당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도 “更立先生案”이라는 구절은 ‘다시 선생안(명부)을 새로이 작성했다’는 의미 외에 여타의 구조물, 소위 선생안(함)을 새로이 건립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입사정(立射亭)’ 이거

나 ‘입사당(立祠堂)’ 이라면 건물을 지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입선생안(立先生案)’ 이란 표현은 건물과 건물 내부에 선생안의 보관함(감실)이 세워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 홍심정 선생명부와 보관함이 다시 세워진 것이다. 이는 위패를 대신하여 선생안과 선생함을 사용했던 약식 예의 형태가 최소한 이 시기 이전부터였음을 시사한다. 이 때는 임진년(1892년)이니 홍심정 51대 사두 조방순은 임진년(1892)에 활터를 재건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홍심정 측면에 나란히 서있는 비석중에서<그림 8>, 광무6년(1902년)에 세운 진사(進士) 조방순 적선불망비(積善不忘碑)를 찾아 그 실존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이로써 당시 조방순이 1892년에 선생안과 선생안함을 만들었음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 Ⅲ. 結 論

이로써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정간이, 언제 어떤 연유로 생겨났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정간의 원형은 선생안이며 선생안은 사당의 위패 형태에서 최소한 1892년도 이전에 선생안이라는 약식형태로 변형되었으며, 정간은 단지 선생안이 모셔져 있던 가운데 칸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1978년도 홍심정이 신축 이전되면서 이층에 선생안을 모시게 되고, 그 바로 아래 일층에 정간이 걸리게 되었던 것이 이후 전국대회를 통해서 와전되어 전국에 퍼져나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 Ⅳ. 提 言

과거 향교나 서원 등의 전문적 교육기관에 비해, 활터는 그 기능이 다소 약했다고 볼 수 있다. 향교나 서원의 기능은 선현제사와 후학양성으로 이분화 되어 있다. 향교는 공맹을 위시한 아동방(我東方) 18현을, 서원은 선현을 봉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격이요, 후학의 교육의 장소로서는 대동소이한

것이다. 이에 비해 사정(射亭)은 향교나 서원에서처럼 엄격한 선현제사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 활터문화의 집궁례(執弓禮)나 납시례(納矢禮) 등의 예식들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 형식과 정도의 차이와 지역 간 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선현제사의 기능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예식을 행하게 되면 예식을 행하게 되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요, 예식의 대상은 대부분 선현을 그 대상<sup>18)</sup>으로 하게 된다. 이에 대상이 되었던 선현들을 모셔놓는 곳을 사당이라고 하는 것이니, 아마도 위 집궁례 등의 예법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사당의 격식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것이 활터의 상황에 맞게 적용된 것이 선생안이라는 약식 사당이 되는 셈인 것이다. 이후 개화기 전후에 서양문물과 기독교 등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맞게 되었고, 우리의 전통문화 상당수가 미신이라는 폄하적 인식이 생겨나면서 소멸되기에 이르렀다.

대개의 우리 전통문화는 추원보본(追遠報本)이라는<sup>19)</sup> 선현에 대한 감사와 보답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전통문화는 제례와의 연결이 당연시 된다 하겠다. 그러나 역으로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러한 선현봉사의 미풍양속이 미신으로 치부되어 폐기되는 실마리가 되게 된 것이다.

활터의 선생안 봉안도 당시 시류(時流)와 더불어 전승의 입지가 약해졌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차선책인 마음만이라도 모을 수 있는 상징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정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활터에서의 선현공경에 대한 예(禮)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전통문화로서의 활터 자체도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집궁하면서부터 구사들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활은, 예(禮)에서 시작하고 예(禮)에서 끝나는 것”<sup>20)</sup>이기 때

18) 나라의 기강이 宗廟社稷이라고 할 때의 宗廟는 선조가 되는 것이요, 社稷은 토지신과 곡식신이 된다. 예의 대상이 선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활터의 경우에도 관혁제의 대상은 토지신에 해당되고, 정간제례를 위시한 여타의 예는 선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주가 되는 대상으로 선현을 언급하였다.

19) 『四字小學』: 追遠報本야야 祭祀必誠하라(멀리 미루어 근본을 갠아 제사를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라) 멀리 미룬다는 것은 자신의 근원인 조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본을 갠다는 것은 그 고마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보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0) 『禮記』 射義 第四十六: 故로 射者는 進退周還이 必中禮이니 內志正하며 外體直然後에 持弓矢審固하고 持弓矢審固然後에 可以言中이니 此可以觀德行

문이다.

국궁은 현재 기로에 서있다 하겠다. 유구한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인가, 스포츠의 한 분야로서 경기화 할 것인가? 매년 늘어가는 활터에서 전통문화의 온전한 계승을 기대하기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활터라면, 그 속에 간직되어온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약 국궁이 스포츠로서의 정체성만 주창한다면 과연 양궁을 비롯한 현대스포츠와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예부터 스스로의 장점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결국 약해진다고 했다.<sup>21)</sup> 그러나 지금의 국궁의 장점이 과연 145m를 날아가는 데에 있을까? 반면에 종래에 과녁을 맞추는 데에만 치중했던 사풍에서 진일보하여, 더 큰 활의 가치 곧 유구한 전통문화와 정신 도덕적 가치에도 중점을 둔다면, 이미 박제화 된 서원이나 향교보다, 심지어 현 제도권의 학교보다도 생생한 전통문화교육의 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살아있는 예(禮)를 배우는 교육장으로써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예(禮)는 신중추원(愼終追遠)에서부터<sup>22)</sup> 출발한다. 선현에 대한 공경심과 고마움을 잊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의 근본인 정간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궁도의 근간이 위태로운 상황이 야기되었으나, 천행으로 그간 개발의 압력 속에서도 꾀꾀하게 김제 홍심정을 지켜내어 오신 김제 홍심정의 구사님들의 덕택으로, 유일하게 김제 홍심정에서 정간의 원형인 선생안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으며, 다시 궁도의 본질을 되새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김제 홍심정 자체가 수백 년의 변화를 간직한 국궁의 역사적 산물이며 그 실증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활터는 정간의 원형인 선생안을 복원하여 공경하는 바의 대상

---

矣니라(고로 활쏘는 것은 나아가고 물러남이 반드시 예에 맞아야 하나니, 안으로는 뜻을 바르게 하고 밖으로는 몸을 굳게 한 연후에 활과 화살을 잡아 굳게 살피고, 활과 화살을 잡아 굳게 살핀 연후에 가히 맞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니 이는 가히 덕행을 보는 것이니라).

21) 『素書』 遵義章 第五 : 失其所強者는 弱하고...

22) 『論語』 學而 第一章 ; 曾子曰 愼終追遠이면 民德이 歸厚矣리라(증자 가라사대, 마침에 삼가고 멀리 미루면 백성의 덕이 두터움에 돌아가리라).

愼終은 초상례를 말하며 追遠은 제사례를 말한다. 사례(관혼상제)중에서 상례 제례를 말하는 것이다. 증자는 이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근본으로 삼았다.

을 분명히 할 때라고 생각된다. 선생안을 세워놓고 공경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 활터에서 강조되던 예(禮)의 시작점인 것이다. 이로부터 하나씩 예(禮)를 정립하여 나간다면, 우리 활터는 유구한 민족정신과 문명을 계승하는 도량으로써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論語

中庸

禮記

四禮便覽

四子小學

黃石公素書

- 국궁문화연구회(2000). **한국 역사속의 국궁 문화**, 육군박물관.  
대성정 사범비전연구회(1999). **평양감영의 활쏘기 비법**, 충북: 푸른나라.  
이용달(1994). **사범비전공하**, 산샘.  
이중화(1929). **조선의 궁술**, 이성곤 역(2008), 국립민속박물관.  
이찬우(2008). **조선시대 활쏘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임실군자정(2013). **군자정이야기**, 전북: 신아출판사.  
정진명(2003). **국궁의 전통사범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청주대 교육대학원.  
정진명(2010). **활쏘기의 나침반**, 서울: 학민사.  
최석규(2009). **국궁의 변천과 사회. 문화적 기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 대학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찬부(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http://www.sportsg1.or.kr/stat/](http://www.sportsg1.or.kr/stat/)

[/http://www.archerynew.net](http://www.archerynew.net)

## ABSTRACT

### **The Pretotype Study of Junggan**

Yu, Seong-Gwon(Sunggyun Univ.) · Park, Geon(Gunsan Univ.)

Korean archery is a martial arts that represents ethnic koreans. Today archery is a living sport. But the traditional elements is forgotten or distorted. One of the most tangible is the Junggan. The history or significance of the Junggan has most been disclosed. The thesis tried to identify the pretotype of the Junggan through the Gimje Honsimjung. Fortunately the Kimje Hongsimjung has been trying to preserve the prototype for a period of twelve thousand years. Therefore the change of years remains unchanged. This will confirm the transformation process from the shrine to the list of teachers and to the Junggan.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affirm the importance of tradition in the context of indiscriminate development.

Key Words : Archery, gunggan, hongsimjung, the list of teachers.

논문투고일 : 2017.03.30  
심사일 : 2017.04.07  
심사완료일 : 2017.04.29





## 한국무예학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432호

Tel. **031-201-3763** Fax. **031-201-3743** E-mail. **yudong78@naver.com**

#432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ong-da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7104, Korea

Tel. **+82-31-201-3763** Tax. **+82-31-201-3743** E-mail. **yudong78@naver.com**

[www.kosoma.org](http://www.kosoma.org)